서부경찰,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비행 예방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해업소 밀집 지역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위한 유해업소 합동 점검 및 청소년 비행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12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합동 점검에는 서부경찰 소속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장, 학교전담경찰관(SPO) 등과 서구 청소년육성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단은 상무지구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PC방 등을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표지',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표지' 부착여부 등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했다. 유해환경 예방 합동 캠페인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10여명도 함께 참석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강주비 기자

농협광주본부-북광주농협, 딸기 수확 행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와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은 지난 10일 북구 용강동에 위치한 북광주농협 관내 딸기 재배농가에서 어린이 딸기 수확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 구상봉 조합장과 건국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 대표 딸기 브랜드인 '오매 지산딸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하우스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실시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딸기 수확 체험을 통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린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범죄도시4' 945만 관객↑…1000만 카운트다운

배우 마동석 주연의 시리즈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영화 탄생에 다가섰다.(사진)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전날 32만8244명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은 945만209명이다. 현재 흥행세라면 석가탄신일 연휴 직전에 1000만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도시4'는 개봉 첫날 82만1467명을 동원해 올해 최고 오프닝 신기록을 세웠으며, 경쟁작들의 공세 속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켰다. 개봉 2일째 100만, 4일째 200만·300만, 5일째 400만, 9일째 600만, 11일째 700만, 13일째 800만, 17일째 900만 관객을 넘기는 등 거침없는 흥행세를 이어갔다.

'범죄도시4'가 관객 1000만명을 넘기게 되면 올해 두번째 천만영화 탄생이다. 역대 33번째로 천만영화 반열에 오르며, 한국영화로는 24번째다. 1000만 돌파에 성공한다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트리플 천만'이라는 진기록도 쓰게 된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1편이 688만명, 2편이 1269만명, 3편이 1068만명이 봤다.

이번 영화는 형사 마석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와 IT 기업 천재 CEO 장동철을 소탕하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마동석이 전작에 이어 마석도를 연기하고 김무열이 백장기를, 이동휘가 장동철을 맡았다.

뉴시스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5·18 맞이 포럼·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1일 5·18 민주정신 함양과 계승을 위한 포럼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북구 임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나눔터에서 개최됐으며 광주·전남 내 RCY 단원을 포함한 7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포럼의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의미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유경남 5·18기념재단 연구실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5·18 주먹밥을 만들고, 주먹밥을 광주시민 및 취약계층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와 5·18정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먹밥을 만들어 나눴던 5·18 공동체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 대한적십자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광산소방 '부처님 오신 날' 화재안전컨설팅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관내 전통사찰 추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

이번 컨설팅은 봄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사찰에 연등 행사 등 화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위험 요소 제거와 사찰 관계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관계자 화재안전관리 현황 청취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전기, 가스, 화기 취급 안전관리 안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의 장애요인 확인 △관계인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당부 등이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사찰은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과 사찰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정려원·위하준 '졸업', 시청률 5.2% 출발

정려원 주연의 tvN 주말극 '졸업'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사진)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졸업' 1회는 시청률 전국 시청률 5.2%를 기록했다. 이는 전작인 '눈물의 여왕'의 첫 회 시청률(5.9%)보다는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같은 시간 방송한 KBS 2TV '미녀와 순정남'은 시청률 15.2%로 1위를 지켰다. MBC TV 금토극 '수사반장 1958'는 9.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드라마는 베테랑 학원 강사 '서혜진'(정려원)과 10년 만에 돌아온 제자 '이준호'(위하준)의 로맨스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018) 안판석 PD가 만든다.

첫 방송은 14년 차 베테랑 강사 서혜진의 일상으로 시작됐다. 뛰어난 강의력과 특유의 빈틈없는 단정함으로 대치동에서 스타 강사로 통하는 그는 소속 학원인 '대치 체이스'의 간판이기도 했다. 매일을 정신없이 학생들에게만 몰두하며 살아가던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중간고사 국어 문제에서 학생의 해석과 교사가 정한 정답이 엇갈린 상황이 벌어진 것.

이의 제기를 하라고 권한 서혜진의 말대로 학생들은 담당 국어 교사인 '표상섭'(김송일)을 찾아갔지만 표상섭은 학생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걱정에 서혜진은 직접 표상섭을 찾아갔다. 서혜진이 학부모가 아닌 학원 강사임을 알게 된 표상섭과 재시험을 요청하는 서혜진 사이 갈등이 일기도 했다.

다음날 서혜진은 뜻밖의 상황과 마주했다. 표상섭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를 것이란 연락을 받은 것. 그를 놀라게 한 사람은 또 있었다. 신입 강사 필기시험이 진행 중인 시험장에 앉아 있는 이준호였다. 이준호는 서혜진의 질문에 "회사 십 년 치보다 수십 배 정도 더 벌어야겠어서"라는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 가볍고 명쾌한 답을 이어갔다. 그럴수록 더욱 답답해진 서혜진은 연애도 못 한다며 학원 강사의 단점을 줄줄이 늘어놓았지만, 이준호는 "알아서 할게요"라며 웃어넘겼다. '졸업' 2회는 이날 오후 9시20분 방송된다.

뉴시스

전남5·18행사위, 호남사학회 '5·18학술포럼'

5·18민중항쟁 제44주년을 맞아 전남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와 호남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포럼이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학술포럼에는 박경섭 전남대 교수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5·18진상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책과 교육 방안을 토론자들과 함께 모색했다.

이날 학술포럼에 참석한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진상보고서가 제대로 서술되고 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학술포럼이 문제 인식과 상황을 공유하며 올바른 진상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도로공사 광주전남센터, 5·18 묘역 참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는 지난 10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와 구 묘역을 참배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

이번 정화활동은 황재구 센터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영업센터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됐다. 참배 후 묘역마다 소형태극기를 꽂는 행사를 진행하고 5·18민주묘지와 구 묘역 전체를 돌며 희생된 분들의 묘비를 닦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황재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센터장은 "5·18 선열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5·18의 가치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